

격주한류리포트
글로벌 한류 동향

Global Hallyu Issue 2016

117호



CONTENTS_

Hallyu Weekly Point

03 2주간 한류 이슈 요약

Hallyu Special

06 한류산업 Pick

09 한류스타 Pick

11 한류예술 Pick

Inside Hallyu

13 한류-산업

14 한류-관광

17 한류-문화

Global Hallyu

20 아시아

24 미주

26 유럽

29 아프리카

격주 한류 리포트
글로벌 한류 동향

2016년 8월 117호

- 발행일 2016년 7월 28일
- 발행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 발행인 김덕중 사무국장
- 작성·감수 남상현 팀장, 김아영 연구원, 류설리 연구원
- 문의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조사연구팀
Tel. 02.3153.1786 Email. ahyoung@kofice.or.kr

Hallyu Weekly Point_

117차 글로벌한류동향 요약

- 이번 동향에서는 아시아·미주·유럽 등 총 8개국에서 일어난 최근 2주간의 한류 소식을 다뤘다. 핵심 한류 이슈로 남녀노소가 하나된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2016', 독일 재즈 음반사 ACT와 손을 잡은 국악그룹 블랙스트링, 평창올림픽 관광객을 사로잡을 강원특선음식 30선에 대해 살펴봤다.
- 한류스페셜에서는 한국 좀비의 첫 승을 신고한 <부산행> 관련 소식과 IT의 선봉에 선 '포켓몬 고', 홍콩서 신인작가로 데뷔한 빅뱅 멤버 탑의 변신을 집중 조명했다.
- 그 밖에 새 단장에 나선 인도의 '허황후 기념공원', 리우올림픽의 승전을 기원하는 상파울루 '한류올림픽' 개최, 이집트 안방극장을 접수한 드라마 <천일의 약속> 등 다채로운 한류 이슈를 만날 수 있다.

■ 쌍방향 문화교류의 허브, 지구촌 영화 상영회 성황리 개최(*16.7.27, 세빛섬) → 본지 17페이지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16년 6월 한강 복합문화공간 세빛섬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매달 '지구촌 영화 상영회'를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특히 '16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상영회의 경우,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반포권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손을 잡고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

지구촌 영화상영회 현장



* 사진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 '05년에 시작된 재단의 영상물 교류 프로그램은 평소 접근하기 힘든 수준 높은 국제 영상물을 무료로 상영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무엇보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일방적 해외 진출을 지양하고,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 호혜적인 쌍방향 문화교류에 정책적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음
- 이번에 상영된 작품은 '13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멕시코의 <어메이징 캣피시>. 당시 가슴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로 주목 받았던 본 영화가 뜨거운 7월, 도심 속 피서를 위해 모인 800여 명의 한강 시민들에게 여름밤의 시원함을 선사
- 특히 이번 상영회는 단순히 해외 우수 영상물을 상영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뛰어넘어 국가 간, 관객 간 쌍방향 문화 소통의 장(場)이었다는 평가. 재단은 기존의 베트남·키르기스스탄·푸에르토리코뿐만 아니라 평소 문화교류가 저조한 국가들과의 영상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2016' 성료('16.7.13~17, 코엑스) → 본지 13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엑스가 공동 주관한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2016'이 성황리에 막을 내림. 총 상담금액은 약 6000만 달러(한화 약 682억 8000만 원), 방문 관람객은 12만 5000여 명을 기록
- 총 314개 기업 및 기관, 2900명에 달하는 국내외 바이어가 방문해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라는 평가. 특히 넷플릭스, 락앤락, 롯데제과, 현대백화점 등 국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참가사들 간 비즈매칭 상담 건수는 약 1204여 건에 달함
- '02년 B2B 전문 전시회로 시작한 본 페어는 최근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거래 영역을 B2C까지 확장하는 추세. "캐릭터 앞에서는 나이가 무색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좋아하는 키덜트족을 대상으로 한 부스에 수많은 성인들이 몰렸다는 후문
- 이날 한국의 캐릭터 변천사를 발표한 한창완 세종대 교수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유아 캐릭터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미국, 일본이 주도권을 쥔 키덜트의 고부가가치 캐릭터 비즈니스를 국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키덜트 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캐릭터 산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요구됨



■ 독일 재즈 음반사 ACT에서 앨범 내는 국악그룹 ‘블랙스트링’*(*16.7.18) → 본지 28페이지

- 소속사 허브뮤직에 따르면, 블랙스트링은 ACT와 향후 정규앨범 총 5장 발표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ACT는 나운선, 닐스 란드그렌 등 유럽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발매하고 있는 레이블로, ECM과 함께 유럽의 양대 재즈 음반사로 꼽힘. 이 음반사들의 앨범을 수집하는 마니아들도 전 세계에 분포돼 있을 정도
- 블랙스트링의 이번 계약은 ‘93년 김덕수 사물놀이가 오스트리아 그룹 레드선과 협연 음반을 ECM에서 낸 이래 23년 만의 쾌거로 평가됨. 국악그룹이 단독으로 ECM이나 ACT에서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블랙스트링이 처음이기 때문. ‘09년 나운선, ‘13년 신예원이 각각 ACT, ECM에서 음반을 냈으나 모두 재즈 보컬 음반이었음
- 무엇보다 ACT의 지기 로흐(Siggy Loch) 회장이 직접 연락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해 짐. 그는 ‘16년 5월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재즈 마켓 재즈어헤드(Jazzahead!)를 방문해 블랙스트링의 데모 음반을 듣고는 지난 6월 계약과 동시에 오는 10월 4일 유럽 발매를 결정
- 뿐만 아니라 블랙스트링은 오는 10월 1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월드뮤직 엑스포 ‘위멕스(WOMEX) 2016’ 공식 쇼케이스 아티스트로 초청됐으며, ‘17년 1월 미국 무대 진출을 앞두고 있음. 이들은 향후 국악의 전통성과 새로운 사운드를 탐구하는 다양한 시도를 계획 중. 월드뮤직으로서의 한국 전통음악의 독특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됨

* 블랙스트링 : 거문고를 가리키는 블랙스트링은 ‘11년 한-영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UK커넥션 프로젝트’를 통해 결성됨.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광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문고 명인 허윤정을 주축으로, 기타리스트 오정수(Jean Oh), 대금 연주자 이아람, 연희집단 ‘The 광대’ 출신 황민왕 등 4명의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에 기반을 두며, 즉흥음악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재즈와 조화를 이루는 음악들을 선보임

Hallyu Special_

한류산업 Pick

글 **고재석** 시사비즈 산업부 기자

■ 〈부산행〉, 한국 좀비의 첫 승일까?

1000만 돌파는 아직 지켜보아야... NEW에게는 큰 호재

- 이제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한 투자배급사 NEW의 성수기 대작 〈부산행〉이 흥행에 질주하는 모양새. 500만 돌파 기록은 〈명량〉을 제침. 다만 이른바 ‘꼼수 개봉’ 논란을 낳은 개봉 전 유료시사회 동원관객 56만 명은 여기서 제외됨. ‘16년 7월 28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7월 27일까지 〈부산행〉의 누적관객은 665만 6476명. 누적매출액은 530억 원을 넘어섬
- 〈부산행〉 연출은 애니메이션 〈돼지의왕〉과 〈사이비〉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연상호 감독이 맡음. 하지만 첫 상업영화, 특히 1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인 까닭에 연 감독 특유의 색깔은 잘 드러나지 않음.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8월 18일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서울역〉에 본인의 색깔을 더 잘 담았다고 언급
- 개봉 전 〈부산행〉은 좀비라는 장르 특성 때문에 흥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한 멀티플렉스 업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장르 때문에 〈부산행〉이 설마 1000만을 갈까 의문이 많았는데, 500만을 넘어서면서 가능성이 없지 않겠구나”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함
- 그렇다면 현재 대부분의 매체보도처럼 1000만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일까. 〈명량〉 스코어를 높여서 1500만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음. 여름 초성수기이고, 대형 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매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스크린 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 위의 멀티플렉스 업체 관계자는 “영화시장은 로또와도 같다. 그래서 지금 같은 초성수기에는 극장이 더 냉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시장 반응에 따라 스크린을 재편성할 수 있다”며 “〈부산행〉은 평점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욕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이번 주에 〈인천상륙작전〉과 〈제이슨본〉이 깔리는데 그 여부에 따라 스크린 수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실제 〈인천상륙작전〉 개봉일인 27일부터 스크린 수 조정국면에 들어간 모양새. 26일 〈부산행〉 스크린 수는 1638개. 그런데 27일에는 1023개로 크게 감소. 〈인천상륙작전〉과 〈제이슨본〉이 개봉날 각각 899개, 770개 스크린을 가져갔기 때문. 이날 〈인천상륙작전〉은 관객 46만 명을 동원하며 〈부산행〉(42만 명)을 제침. 다만 〈부산행〉은 전날과 관객 수는 동일. 〈인천상륙작전〉의 스코어는 〈베테랑〉과 〈도둑들〉을 뛰어넘은 수치. 〈제이슨본〉도 이날 30만 명을 동원. 참고로 27일은 ‘7월 문화가 있는 날’이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함
- 결국 〈부산행〉이 1000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이 영화를 봐 줘야 함. 과거 〈암살〉이나 〈베테랑〉 등은 모두 세대 아우르는 코드를 갖췄었음. 일단 관계자들은 기성세대가 〈부산행〉보다 〈인천상륙작전〉과 〈제이슨본〉으로 몰릴 가능성 높다고 보는 듯함. 〈인천상륙작전〉은 업계 1위 CJ E&M의 올해 최대 야심작
- 투자배급을 책임진 NEW가 입을 수혜에도 관심. NEW는 올해 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화려하게 비상했지만 회사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영화투자배급업에서 ‘15년부터 부진에 빠짐. ‘13년 58억 원의 제작비로 1280만 명 관객을 동원한 〈7번방의 선물〉과 75억 원 제작비로 1137만 명 관객 동원한 〈변호인〉 이후 대형 흥행작이 없음. 최민식 주연의 〈대호〉는 평단의 좋은 반응에도 흥행에 참패
- 박성호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부산행〉과 〈서울역〉을 한 영화로 보고 NEW가 제작비 125억 원을 투자했다고 볼 때 수익 시나리오를 가정. NEW의 투자지분율을 20%로 본다면, 두 영화 합계 관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할 경우 투자수익 23억 원과 배급수익 35억 원을 합쳐 58억 원의 이익을 얻을 전망. 두 영화 관객을 더해 1500만 명이 넘으면 수익은 100억 원에 육박할 듯. NEW의 투자지분율이 30%라면 수익은 1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지난해 2위 경쟁에서 쇼박스에 밀린 NEW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모양새. 쇼박스는 지난해 역대 〈암살〉, 〈사도〉, 〈베테랑〉 모두 흥행시키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박성호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부산행〉이 개봉 초반 메가히트 조짐을 보여 주면서 NEW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기획/개발 능력도 검증받게 됐다”며 “시가총액 역시 쇼박스 수준으로 상승할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해 향후 NEW엔터테인먼트의 성장과 〈부산행〉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로 출발한 포켓몬, IT의 선봉에 서다… 동력은 IP(지적재산권)

- 최근 포켓몬 고가 화두. 포켓몬 고는 닌텐도와 구글 자회사인 나이앤틱(Niantic)이 공동 개발한 AR(증강현실) 게임. 이 게임은 구글 맵에 기초함. 포켓몬 고 열풍의 동력은 AR이 아니라 IP(지적재산권)이라는 분석이 등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3회 IP 서밋 콘퍼런스’ 주제발표를 통해 ‘95년 일본에서 처음 제작된 포켓몬이 이후 TV프로그램과 만화, 영화 등으로 제작돼 수출길에 오르고 이제는 게임으로까지 확장됐다고 설명
- 실제로 IP는 문화산업과 정보기술(IT), 그리고 캐릭터 산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 CJ E&M도 자사가 가진 IP를 통해 중국 내에서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임. 이들은 패션, 뷰티, 헬스, 육아 영역에서 중국 업체들로부터 제안 받고 있다고 전해짐. 포켓몬 고 열풍을 통해 국내 문화산업계도 IT와의 보다 적극적인 결합을 구상해야 할 계기를 마련한 셈



한류스타 Pick

글 정진영 아주경제 아주스타부 기자

■ 빅뱅 탐, 홍콩서 예술작품 자선경매 개최... K팝 스타 넘어 아시아 신인 예술작가로

- 그룹 빅뱅의 멤버 탐이 세계적인 경매 전문기업 소더비와 손을 잡고 오는 10월 3일 홍콩에서 자선경매를 진행. 아시아권 스타가 소더비와 경매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최초. 프로젝트 이름은 '#TTTOP'로 탐이 직접 큐레이팅한 작품들이 공개될 예정
- 탐은 국내에선 아이돌 스타 및 래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술작품 디자이너 겸 수집가이기도 함. 이번 바자회에서 그는 그간 수집한 당대 예술작품들을 전시할 계획. 소장한 작품을 내놓는 상업성 경매가 아니라 기부 형식의 경매라 탐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런티를 받지 않음. 소더비 역시 수익금을 아시아문화협회(Asian Cultural Council)로 기부. 이 금액은 아시아 신인 예술가 및 재미 아시아계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
- 이번 프로젝트가 눈길을 끄는 건 '#TTTOP'가 단순한 바자회나 기부와 달리 예술과 K-Pop의 결합이라는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 앞서 같은 그룹 멤버 지드래곤 역시 예술과 K팝 스타로서 자신이 가진 인프라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음
- 탐의 이번 프로젝트는 아시아권의 신인 예술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됨. '15년 6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피스마이너스원 : 무대를 넘어서(PEACEMINUSONE : Beyond the stage)'라는 이름의 전시를 연 지드래곤 역시 큰 맥락에서 이런 취지와 궤를 같이함. 지드래곤은 개막을 하루 앞둔 '15년 6월 9일 전시가 열리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통해 많은 미술가분들이 소개되고 대중이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밝힘
- 순수 예술에 상업적 요소가 개입되는 데 대한 우려의 시각과 K-Pop 스타와 예술의 만남이 대중과 예술의 거리감을 좁히고 새로운 문화 흐름 탄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병존



■ 초콜릿·마스크팩 이어 휴대전화·영화관까지… 박해진, 중화권에서 인기몰이

- 배우 박해진이 중화권에서 인기를 높이고 있음.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해진은 올 9~10월 출시를 목표로 자신을 모델로 한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정식으로 출시. '16년 7월 말 현재 최종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홍콩에 기반을 둔 IT업체 무버(MOVER)와 토러스1024에서 '박해진폰' 콘텐츠 개발 및 전체 진행을 담당
- 중국에서는 앞서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모델로 한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돼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낳은 바 있음. '호날두폰'을 출시한 업체는 '박해진폰'의 생산 및 유통을 맡기 위해 소속사 측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 꾸준한 중화권 활동과 한국 및 중국에서의 기부*로 신뢰 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박해진인 만큼 '박해진폰'이 '호날두폰'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소속사에 마운틴무브먼트에 따르면 박해진은 지난 6년간 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 '09년 서아프리카 의료봉사 이후 '11년 일본에서 디너쇼 겸 생일파티를 열고 수익금을 일본 지진피해 돕기 성금으로 기탁. '16년 4월에는 데뷔 10주년 기념 팬미팅을 독점 생중계한 중국 동영상 사이트 유쿠에서 받은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가족이 없고 수술이 필요한 중국 아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

- '박해진폰' 출시에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서 출시된 '박해진 초콜릿'과 '박해진 마스크팩'이 모두 좋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 '박해진 초콜릿'의 경우 지난 '10년 KBS2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연하남 캐릭터로 인기를 끈 뒤 출시됐던 상품으로 박해진의 이름과 얼굴을 내건 점이 특징. 데뷔 10주년을 맞아 약 6년 만인 '16년 7월 재출시됐으며 일반 캐릭터 초콜릿의 세 배 이상 판매를 기록, 인기에 힘입어 새 초콜릿을 추가로 론칭하기로 함
- 화장품 브랜드 제이준 코스메틱에서 출시한 '박해진 마스크팩' 역시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16년 5월, 6월 연달아 마스크팩 판매 순위 1위를 기록.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중국 사이트에서도 6월 판매 순위 1위에 올랐으며, 곧 드러그스토어 올리브영에도 입점할 예정. 최근 2000억 원 대에 이르는 수출 계약도 달성
- 더불어 박해진의 이름을 딴 '박해진 영화관'도 중국 심양 롯데월드점에서 시작해 천진관, 위해관, 소주 태평관까지 4개관으로 증가. 이미 지난 4월 '박해진 우표' 한정판 100세트가 698위안(12만 3740원)의 가격으로 출시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음. 그만큼 박해진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중국을 사랑하는 착한 배우”라는 이미지로 각인된 것. 하반기 JTBC 드라마 ‘맨투맨’ 출연을 앞둔 만큼 박해진의 중화권 내 인기 상승을 기대할 만함

한류예술 Pick

글 박경린 전시기획자

■ 한국 현대미술, ‘열반(Nirvana)’을 주제로 러시아서 선보여(*16.6.30~8.28, 모스크바 VDNKH)

- 모스크바의 대표 공원인 베데엔하(VDNH)*에 자리한 국립동양박물관 전시관에서 러시아 최초 대규모 한국현대미술전이 진행 중. 참여 작가는 백남준을 비롯해 강형구, 박선기, 천경우, 이명호, 한성필, 민, 김기철 등 8인(팀)
- 전시기획자 안드레이 마티노브와 김영호 교수는 이번 전시의 주제를 ‘열반(Nirvana)’으로 정함. 현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의 실체를 깨닫는 불교적 상태가 예술이 지향하는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착안
- 이번 전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동방예술박물관의 소장품 일부와 한국 현대미술 간 대화 형식으로 진행. 이에 뉴미디어, 조각, 설치, 사운드, 페인팅 등의 작품 25점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장을 마련
- 모스크바타임스는 본 전시를 소개하면서 주목할 만한 작가로 강형구, 한성필, 천경우 등을 언급. 강형구는 거대한 극사실주의 회화를 선보이는 작가로 실재보다 훨씬 거대하게 아이콘화 된 인물들을 화면에 포착해 눈길을 끄
- 최근 러시아는 저유가로 인해 경제가 주춤하는 상황인 반면, 10여 년 전부터 현대미술품 구입 및 미술관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임. 이는 문화적으로 괄목할 만한 교류가



없었던 러시아 내 한국 현대미술 전시가 주목받는 이유임

- 게다가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증가 추세여서, 현대미술에 대한 미술사적 뿌리가 깊고, 주요 컬렉터들의 관심이 많은 러시아와의 미술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

* 베데옌하(전 러시아 박람회장): 소련(소비에트연방) 50년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으로 소련에 속해 있던 다양한 민족과 지역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조성됨. 현재 이 거대한 공원에는 항공박물관, 핵에너지박물관 등의 문화 기반시설이 들어와 있으며, 약 2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변신. 또한 제6회 모스크바비엔날레의 주전시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동유럽에서 극동아시아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과제를 수행 중임

■ 조각가 박은선, 피렌체에서 동서양의 건축양식을 혼합한 기둥 조각 선보여

(*16.7.20~9.18, 이탈리아 피렌체 전역)

-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관광지 중 하나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박은선 작가의 거대한 기둥 조각 작품이 선보임. 다양한 역사적 장소를 가로지르며 선보이는 이번 공공 미술 작업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음
-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둥, 배흘림 기둥과 같은 동양의 건축에서 완벽한 균형미로 알려진 여러 양식들을 함께 소개하는 이번 작업은 7월 20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무료로 진행
- 피렌체의 피티 광장, 베끼오 궁전, 산 미니아토 성당, 미켈란젤로 광장, 피렌체 공항 등 주요 관광지를 아우르는 이번 기획은 스튜디오 코페르니코(Studio Copernico)에서 기획하고 피렌체시에서 주관
- 최근 국내 미술계는 위작 사건으로 인해 위축된 상황. 문화체육관광부가 '16년 7월, 미국, 프랑스 감정전문가들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그 이유. 이처럼 경직된 국내 미술 시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미술 프로젝트들이 한국 작가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임
- 무엇보다 현지 상황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이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내 한국 작가 발굴 및 국가 간 미술 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

Inside Hallyu_

한류-산업

■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2016’ 성료(‘16.7.13~17, 코엑스)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엑스가 공동 주관한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2016’이 성황리에 막을 내림. 총 상담금액은 약 6000만 달러(한화 약 682억 8000만 원), 방문 관람객은 12만 5000여 명을 기록
- 행사 기간 중 314개 기업 및 기관, 2900명에 달하는 국내외 바이어가 방문해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라는 평가. 특히 넷플릭스, 락앤락, 롯데제과, 현대백화점 등 국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참가사들 간 비즈매칭 상담 건수는 약 1204여 건에 달함
- ‘02년 B2B 전문 전시회로 시작한 본 페어는 최근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거래 영역을 B2C까지 확장하는 추세. “캐릭터 앞에 나이가 무색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좋아하는 키덜트족을 대상으로 한 부스에 수많은 성인들이 몰렸다는 후문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2016 현장



*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16.7.16)



- 이날 한국의 캐릭터 변천사*를 발표한 한창완 세종대 교수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유아 캐릭터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미국, 일본이 주도권을 쥔 키덜트의 고부가가치 캐릭터 비즈니스를 국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키덜트 시장 확대에 따라 변화하는 캐릭터 산업의 매출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국산 캐릭터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한국 최초의 캐릭터는 1897년 독립신문에 실린 세창양행 광고의 토끼와 거북의 삽화 캐릭터. 이때부터 1980년까지 한국에 캐릭터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를 거침. 1981~1992년에는 경제가 고도성장하면서 캐릭터 산업 기반이 형성됐고, 19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다양한 캐릭터가 쏟아짐. 최고의 공공 캐릭터인 ‘호돌이’, 최초 TV 애니메이션 캐릭터 ‘까치’, 최초 테마파크 캐릭터 ‘아롱이다롱이’(서울랜드), 최초로 상업적으로 활용된 캐릭터 ‘부부보이’(바른손) 등임. 이때는 ‘둘리’가 첫선을 보인 시기이기도 함. 이후 1998~2002년 국내 캐릭터의 산업적 가치 확대, '03년 뽀로로 등장, '06~'08년 플래시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아용 캐릭터, 학습만화 캐릭터가 정점을 찍으며 한국 캐릭터 산업 수출이 수입을 뛰어넘음(연합뉴스, 2016.7.14)

한류-관광

■ 강원특선음식 30선으로 평창올림픽 관광객 사로잡는다(‘16.7.20, 케이스타일허브 한식체험관)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내 3개 시·군이 개발한 ‘2018 강원특선음식 30선’의 시연·시식회를 개최. 특선음식 30선은 토속음식 세계화를 위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음식으로 구성됨. 이는 국내 유명 요리사들이 지난 1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메뉴임
- 특히 본 행사에는 영월, 정선, 강릉을 대표하는 요리사들이 등장해 눈길을 끄. 영월 출신 요리사 에드워드 권이 평창 특선메뉴 10선 중 ‘여심꽃밥’이란 이름의 비빔밥샐러드를 시연했으며, 시식음식으로 토속 식재료인 메밀파스타, 송어만두를 선보임



- 또한 영화 <식객>, <왕의남자>의 음식감독 김수진 씨가 정선군이 선정한 향토음식 10선 중 더덕보쌈을 시연. 시식 음식으로는 토속 식재료를 활용한 곤드레비빔밥과 옥수수푸딩을 선보임. 더불어 빙상경기 도시 강릉시는 지역 특선메뉴 10선 가운데 가톨릭 관동대 김호석 교수와 최현석 요리사가 삼계옹심이를 시연하고 두부샐러드, 삼선비빔밥을 시식음식으로 소개
- 문화체육관광부는 '15년부터 지역축제를 연계한 홍보 및 일반 업소를 대상으로 한 레시피 보급 교육을 실시해 강원도 토속음식이 관광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힘써 옴. 일례로 '15년 말부터 송어축제(평창), 대관령 눈꽃축제(평창), 겨울문화페스티벌(강릉)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음식 상품화를 홍보하고 보급하는 데 집중
- 한류 열풍이 음식 관광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대표음식이 관광지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관건은 음식의 향토색을 살리는 것.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차별화되지 않는 먹거리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지역 고유 특산물을 소재로 생산-조리-시식-구매 요소가 연결된 완결성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세계일보, 2016.7.30.)
- 이번 특선음식 30선이 소포장 특산물 개발, 온라인 유통처 확보 등 관광객 친화형 접근과 같은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평창 10선(한우불고기, 메밀파스타, 메밀더덕롤까스, 황태칼국수, 송어덮밥, 송어만두, 비빔밥샐러드, 사과파이, 굴리미, 초코감자)/강릉 10선(삼계옹심이, 짬뽕옹심이, 크림감자옹심이, 초당두부밥상, 두부삼합, 두부샐러드, 바다해물밥상, 삼선비빔밥, 해물뚝배기, 마파두부탕수)/정선 10선(곤드레비빔밥, 곤드레버섯불고기, 더덕보쌈, 콧등치기국수, 감자뽕생이밥, 황기닭백숙, 황기족발, 느른국, 채만두, 옥수수푸딩)

■ 서울시, 첫 외래 관광객 전용 관광패스 '디스커버 서울패스' 출시('16.7.29)

- 서울시는 서울관광마케팅과 함께 서울 시내 고궁, 한류체험관, 미술관 등 16개 유료 관광지 입장 및 교통카드 기능이 담긴 외국인 관광객 전용 1일 관광패스 '디스커버 서울 패스 (Discover Seoul Pass)'를 출시
- 첫 관광시설을 입장한 시각부터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본 카드는 서울 체류 기간 또는 향후 서울 재방문 시 교통수단, 편의점 등에서 활용 가능. 패스 가격은 3만 9900원. 16개 관

광시설을 개별 방문할 경우, 총 입장료인 15만 2000원보다 약 70% 할인된 금액. 이에 더해 시티투어버스 요금도 10~20% 할인 받을 수 있음

- 패스로 입장 가능한 서울 관광지는 16곳.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삼성미술관 ‘리움(Leeum)’,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뮤지엄 김치간, N서울타워 전망대, MBC월드, K-Live 동대문, Trick eye뮤지엄, 그레뱅뮤지엄, 박물관은 살아있다, 피규어뮤지엄W 등임
- 오프라인 구입처는 KEB하나은행, CU편의점, 명동 관광안내소, 시티투어버스 매표소(광화문·DDP) 등이며, 비짓서울에서 온라인 사전 구매 후 명동관광정보센터에서 수령이 가능. 향후 외국인 관광객 거점인 홍대, 광화문, 동대문, 서울시청(시민청) 등 지역 관광안내소를 통해 판매지점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16년 8월 말까지 시범 판매 기간을 거칠 예정.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패키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개별 관광객들의 서울 관광 만족도 및 재방문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



* 사진 : 데이터뉴스(2016.7.29)



한류-문화

■ 가수 로이킴, 'G+ 스타존 홍보대사' 위촉('16.7.15)

- 강남구는 '13년 압구정 로데오역에 '나눔과 기부의 행복공간, G+ 스타존'을 조성. 이는 한류스타들에게 화환 대신 쌀 등을 후원 받아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기부 사업. 향후 6개월간 로이킴의 활동으로 기부되는 쌀, 화환, 생필품, 라면 등 기부금품은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
- 현재 강남구는 한류를 활용해 MICE 관광특구 활성화에 나섬. '16년 5월 C-페스티벌, 10월 강남페스티벌, 연말에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등 계절별 축제를 보유. 또한 최고 K-Pop 스타들을 아트토이(강남돌)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한류스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

■ 쌍방향 문화교류의 허브, 지구촌 영화 상영회 성황리 개최('16.7.27, 세빛섬)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16년 6월 한강 복합문화공간 세빛섬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매달 '지구촌 영화 상영회'를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특히 '16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상영회의 경우,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반포권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손을 잡고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
- '05년에 시작된 재단의 영상물 교류 프로그램은 평소 접근하기 힘든 수준 높은 국제 영상물을 무료로 상영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무엇보다 한국 드라마 영화의 일방적 해외 진출을 지양하고,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 호혜적인 쌍방향 문화교류에 정책적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음
- 이번에 상영된 작품은 '13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멕시코의 <어메이징 캣피시>.



당시 가슴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로 주목 받았던 본 영화가 뜨거운 7월, 도심 속 피서를 위해 모인 800여 명의 한강 시민들에게 여름밤의 시원함을 선사

- 특히 이번 상영회는 단순히 해외 우수 영상물을 상영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뛰어넘어 국가 간, 관객 간 쌍방향 문화 소통의 장(場)이었다는 평가. 재단은 기존의 베트남·키르기스스탄·푸에르토리코뿐만 아니라 평소 문화교류가 저조한 국가들과의 영상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지구촌 영화상영회 현장



* 사진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년 국제 영상물 교류 프로그램 상영작

<p>헬로 뉴욕</p> <p>키르기스스탄, 120분</p>	<p>우리들의 6월</p> <p>베트남, 90분</p>	<p>마리아 산체스를 찾아서</p> <p>푸에르토리코, 100분</p>
<p>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키르기스스탄 청년의 미국 적응기</p>	<p>농구부 청소년들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하이틴 영화</p>	<p>첫눈에 반한 운명의 여인인 ‘마리아’를 찾아나서는 남자들의 우여곡절 여행기</p>



약속의 길	어메이징 캣피시	텐저린즈
베트남, 90분	멕시코, 87분	에스토니아, 86분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찾아 나선 여행길에 만난 사랑 이야기	외롭게 살아가던 클라우드아가 병원에서 만난 마르타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유대감을 느낀다	압하스와 조지아, 전혀 상관 없는 두 지역의 전쟁에 관여하게 된 에스토니아인들의 이야기
		

■ 외국인 국악 정규강좌 ‘Hello, Gugak’ 개설(*16.7.28)

- 국립부산국악원은 국내에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약 3개월간 외국인 국악강좌를 개설. 본 강좌는 ‘한국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운영됨
- 이번 정규강좌는 ‘14년부터 부산국악원의 ‘외국인국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의 잇따른 강습 요청에 의해 마련됨. ‘16년 상반기에 열린 가야금 강좌에는 러시아, 중국, 멕시코, 폴란드, 필리핀, 바하마 등 총 10개국에서 온 외국인이 참여한 바 있음. ‘Hello, Gugak’을 계기로 다양한 국악 콘텐츠 강좌 및 수강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Global Hallyu_

아시아



■ 한중 합작영화 <바운티 헌터스>, 말레이시아에서도 호평(*16.7.14)

- 지난 7월 1일 중국에서 최초 개봉한 <바운티 헌터스>는 개봉 첫 주에 중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한 중국 영화로 주목을 받음. 7월 11일 기준 누적 매출액 2억 206만 3천 위안(한화 약 347억 5000만 원)을 기록. 이는 한중합작영화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한 오기환 감독의 <이별계약>의 2억 위안을 개봉 10일 만에 넘어선 수치

말레이시아의 한 영화관에 설치된 바운티 헌터스 이민호 포토존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김민수 말레이시아 통신원

작품명	감독 및 출연	내용
바운티 헌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 신태라 • 출연 : 이민호, 종한량, 당언 등 	현상금 사냥꾼들의 꿈과 우정을 그린 이야기

- 중국 대륙에서의 여세를 몰아 지난 14일 말레이시아에서 개봉한 <바운티 헌터스>에는 이민호를 비롯한 종한량, 당언 등 중화권의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 기대를 모음. 현지 언론 Malay Mail Online은 영화 촬영 차 말레이시아에 방문한 이민호를 집중 보도하면서 그의 첫 중국 진출 소식과 함께 영화 속 말레이시아를 만나보는 것이 또 다른 재미라고 언급
- <바운티 헌터스>는 중국, 영국,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에서 개봉한 8월 대만 추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세계 각국 관객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

■ '2016 차이나조이'*서 한국기업공동관 운영(16.7.28~31, 상하이 뉴인터내셔널 엑스포 센터)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차이나조이 B2B 전시관 내에 한국기업공동관을 운영하고, 국내 강소 게임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섬. 한국 지스타의 2배 규모인 차이나조이는 '04년에 시작해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중국의 대표 게임쇼. 문체부는 '11년부터 차이나조이 참여를 위한 국내 게임기업의 부스 설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
- 차이나조이 한국기업공동관에는 드래곤플라이, 펄어비스, 제페토, 모나와 등 35개 중소기업체가 참가해 해외 바이어와 비즈매칭을 진행. 한국공동관과 연계해 열리는 '제8회 한·중 게임 문화축제'에서는 참가기업들의 게임 원화와 게임 속 캐릭터들의 의상을 전시하는 한·중 게임 홍보관을 운영. 이외에도 '월드 모바일게임 엑스포&컨퍼런스(WMGC)'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CGDC)' 등 다양한 주제의 부대 행사도 진행

2016 차이나조이 현장



* 사진 : 헝그리앱(2016.7.30)



- '15년 게임산업 수출액은 32억 2183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 중 절반이 넘는 55.3%를 차지. 이는 방송(7.3%), 음악(6.2%), 영화(1.5%)를 모두 더한 것을 넘어선 수치. 그중 대(對)중국 수출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수출 확대가 관건. 그러나 '16년 7월 6일 기준,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상위 20위권에 오른 게임 중 8개가 중국 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나타남. 게임 완성도 면에서 중국이 국내 소비자를 충족시키는 궤도에 올라섰다는 의미
- 더 큰 문제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텐센트 등 중국 업체들의 투자에 의존해 왔다는 것. 이는 한국 게임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중국 업체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일례로 텐센트는 '14년 넷마블게임즈에 약 5300억 원을 투자하며 3대 주주가 됐고, 라인과 함께 네시삼십분에 1000억 원을 투자(국민일보, 2016.7.7). 일각에서는 수출 효자 역할을 해 왔던 국내 게임산업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우려를 제기
- 이번 차이나조이 한국공동관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는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및 안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생존 위기에 놓인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정보 제공, 번역·자막의 현지화 제작 지원 등 수출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지속돼야 할 것임

*공식명칭 : China Joy(China Digital Entertainment Expo&Conference). (주최) China Audio-Video & Digital Publishing Association



■ 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한국식으로 새 단장('16.7.20~9.23)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 아요디아(Ayodhya) 지역 내 허황후 기념공원의 리모델링을 위해 국내 디자인 설계공모를 시작. 이는 '15년 인도 모디 총리 방한 시 한-인도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것. 인도 정부는 사업 부지와 공사비 약 90억 원을 제공하고, 한국은 한국적인 양식 설계와 디자인 감리를 담당

- 한국은 확장되는 수변공원에 다양한 테마정원을 조성기로 합의. 양국 간 역사적 관계를 소개하는 시설과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아요디아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동시에 건립될 계획

허황후 기념공원(Queen Hur Memorial Park) 전경



* 사진 : <http://www.queenhur-memorialpark.org>

- 아요디아 지역은 고대 코살라 왕국의 초기 수도. 더불어 가락국 초대왕인 김수로왕의 부인이자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조모인 허황옥의 출신지로 추정되는 곳.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이 인도에서 태어나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건너왔으며, 16세의 나이에 김수로왕과 혼인했다고 전해짐
- 인도 아요디아시는 '00년 경남 김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듬해 우타르프라데시 주 정부로부터 아요디아 지역 인접 부지를 제공받아 허황후 기념비와 공원을 조성. '18년 완공 예정인 허황후 기념공원을 통해 한-인도 양국의 오랜 문화교류와 역사가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미주



■ 미국 시장을 강타한 한식당, 반면 '짜퉁 한식', '구색 맞추기식 메뉴' 등 모니터링 시급^(16.7.17)

- 한식이 빠른 속도로 미국 시장에서 성장 중. 유명 외식업체 리뷰 웹사이트인 <Yelp>에는 '16년 7월 18일 기준 1859개의 한식 레스토랑이 등록되어 있으며, 뉴욕 근교 워싱턴 D.C.에는 약 760개가 운영 중. 미국 동부 대표 도시에만 무려 2600개 이상의 한식 레스토랑이 등록되어 있는 셈
- 코트라 시카고무역관에 따르면, '11년부터 '16년까지 현지 한식 레스토랑 숫자는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00개의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음(매출 규모는 총 21억 달러). 더욱이 '21년까지 연평균 2.8%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최근 현지 한국 식당 및 퓨전 한식 식당들이 수준에 못 미치는 한식 요리로 현지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강기향 미국(뉴욕) 통신원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D.C.에는 한국인이 단 한 명도 없는 한식 레스토랑이 즐비해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일례로 한 한식당에는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재료가 구비되어 있으나, "음식 맛이 너무 짜다" 혹은 "구색 맞추기에 가까워 보인다"는 지적이 등장. <Yelp>의 리뷰는 더욱 부정적. "한식이 이런 맛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 현지 한식당 운영 및 관리 재점검이 시급

■ 영화 <부산행>, 북미 순항 중^(16.7.22)

- 지난 7월 22일 미국 LA 지역에서 개봉한 영화 <부산행>(Train to Busan)이 개봉 첫날부터 연일 매진을 기록. CGV 시네마 LA 총괄매니저 세인 발렌시아 씨는 "좀비 영화는 미국 젊은



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장르라 반응이 있을 것은 짐작했었지만, 생각보다 호응이 뜨겁다”며 2개의 상영관에서 1일 10회 상영 중이라고 밝힘

- 미국 영화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미국 영화정보 웹사이트 Rotten Tomatoes에서는 100점 만점에 95점을, We Got This Covered에서는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 대표적인 영화평론 사이트인 Roger Ebert의 브라이언 탈레리코(Brian Tallerico) 기자의 평론은 단연 돋보임
- 그는 “지금까지의 좀비 영화는 나 아닌 타인에 대한 불안감(이들테면 네 이웃도 좀비가 되어 당신의 뇌를 파먹을 수 있다)에 기반해 제작되어 왔으나, <부산행>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인류애적 가치와 함께 이기적인 이들은 결국 죽고 만다는 설정을 전달한다”며, 기존의 좀비 영화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평가
- 유튜브에 게재된 <부산행> 예고편에서도 네티즌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상황. 전 세계 156개국에 판매된 본 영화는 미국뿐 아니라 8월 11일 호주, 뉴질랜드, 8월 17일 프랑스, 8월25일 홍콩, 9월 2일 대만, 9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 좀비 바이러스가 좁은 기차 안에서 퍼진다는 신선한 설정이 할리우드를 넘어 유럽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



브라질
BRAZIL

■ 상파울루에서 ‘한류올림픽’ 개최(*16.7.9, 봉헤씨로 한인학교 Polilogos)

-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을 기념해 현지 한류 콘텐츠 사이트 KPOPSTATION(대표 엄인경)이 한류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게임을 즐기는 ‘한류올림픽’을 개최. K-Pop 팬들을 중심으로 4,000여 명의 참가자가 운집. 시스타, Ash Gray, 러블리즈, 비정상회담 Carlos Gorito 등 유명인들이 응원 메시지를 전달
- 리우올림픽 한국 팀 응원단인 Viva Korea 공연뿐만 아니라, 드라마 OST 퀴즈, 투호, 종이 접기, 닭싸움 등 한국 전통놀이 체험 및 한복 입기, 한식 코너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무료로 진행된 본 행사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1kg 상당의 식재료 기부를 권장했으며, 기부 받은 식량은 봉혜찌로 결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이병석 씨에게, LUEST 팬들이 기증한 장난감은 한인복지회에 전달해 행사에 의미를 더함

한류올림픽에 모인 수많은 한류 팬들



* 출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김정현 브라질 통신원

유럽



■ 프랑스의 시선을 끌어당긴 영화 <곡성>(*16.7.6)

- 7월 6일 나홍진 감독의 <곡성(The Strangers)>이 프랑스에서 개봉. 지난 5월 '제69회 칸 국제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곡성>에 대한 현지 언론인의 평점은 4.1점(5점 만점)을 기록. 이어 7월 20일 프랑스 영화전문 사이트 알로시네(Allocine)에 등록된 관객들의 평점은 3.9점(5



점 만점)으로 비교적 호평하는 분위기가 주류

- 다수 현지 언론의 반응은 흥행 가능성을 입증. 개봉 당일 르피가로(Le Figaro)지는 “한국식 칵테일 영화, 곡성”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담음. “수사영화, 샤머니즘, 익살극 등 <추격자>와 <황해>를 연출한 나홍진 감독이 괴상하고도 거대한 악몽 속에서 영화 장르를 뒤섞어 놓았다”고 밝힘
- 이어 “영화의 도입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과 유사해 한국의 누아르 영화 코드를 따르고 있으나, 곧 가족사에서 환상의 이야기로, 익살극에서 좀비 영화로 장르가 변화”한다고 강조. 특히 영화에서 등장하는 체면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잘 보여 준다고 평함
- 같은 날 르몽드(Le Monde)지는 “홀린 듯한 기묘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곡성을 분석. “곡성을 본 관객들은 시청각적으로 흥미해지는 구성과 긴 상영 시간에 녹초가 되어 영화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영화관을 나오게 된다”고 전해 영화의 독특성에 의미를 부여
- <곡성>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에 대한 현지 비평은 대부분 ‘어두운 면’과 ‘독창성’으로 관객을 놀라게 하며,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에 방점을 둬. 이러한 이미지는 다양한 국가의 영화들이 동시에 소개되는 유럽 영화 시장에서 고정관념으로 뿌리내릴 수 있음. 한국 영화의 유럽 진출 시 ‘독창성과 개성’ 혹은 ‘고정관념의 탈피’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가 향후 와일드카드 활용의 변수가 될 수 있음

“한국식 칵테일 영화 <곡성>”을 다룬 르피가로지



« The Strangers », cocktail coréen
CINÉMA Polar, chamanisme, burlesque... Na Hong-jin, le réalisateur de « The Chaser » et de « The Murderer », mélange les genres dans un cauchemar baroque et spectaculaire.

L’étrange et étriqué est fait pour les chuchotements. Il n’est pas fait pour les éclats. Il n’est pas fait pour le hurlement et d’impressionner par sa nouveauté et son originalité. 20 juillet sur M6 en High Defi (12 h) ou téléchargé, du mercredi la fin jusqu’à présent, aucun de ses films n’a été distribué en France. Un jour, dans le même esprit au Festival de Cannes, dans la zone tradition coréenne, virtuosisme et violence, deux le bien est un policier impitoyable qui rêve de devenir une femme. Un mélange des genres (film et roman) est fait. Na Hong-jin, lui, a déjà bien identifié en France. Ses deux premiers langages-métrages, « The Chaser » (2008) et « The Murderer » (2010), sont deux premiers en sélection officielle à Cannes, en ont fait le champion du polar coréen. Le mélange de burlesque de Na Hong-jin, ce sont des scènes de comédie dramatique ou tendre qui peut être mal devinées une arme contre les maux des bourgeois mariés, se démontrent, sont et bon pour la fiction.

Le diable s’invite au banquet
Avec « The Strangers », Na Hong-jin prend une autre direction. Le polar de départ ressemble à celui de « Memories of Murder », film de serial killer sans titre et chef d’œuvre du grand lang-been-lu (« The Hunt », « Sniper », « Jeune fille », « Transparence »). Dans un village de montagne, une famille est retrouvée assassinée. Un meurtre sans mobile apparent. Sur les lieux du crime, un parent suspect d’article serait avoir vu le diable. Il est le capable de prononcer une parole. Il parle comme va le que plus et le policier chargé de l’enquête n’a à rien.

d’un cadavre, long, qui est l’air, grimé et tendu. « Tu es le cadavre de ton père », le complément un cadavre. Long, il, les scènes de film sont courtes et respectées. Na Hong-jin prend en fait un malin plaisir à décrire les scènes, surtout sans prétexte de la chose que l’ennemi au fantomatique. Au bout de 40 de scène, sans rien égarer à son héros paragon.

Long, qui a de quoi causer l’ennemi. Il est pire d’une petite fille qui semble être une victime. Un événement. Il est pire d’une petite fille qui semble être une victime. Un événement. Il est pire d’une petite fille qui semble être une victime. Un événement.

« The Strangers »
Police de Na Hong-jin
Avec « The Strangers », Na Hong-jin
Le Monde | 16 juillet 2016

* 사진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지영호 프랑스 통신원



■ 독일 재즈 음반사 ACT에서 앨범 내는 국악그룹 ‘블랙스트링’* (‘16.7.18, 동아닷컴)

- 소속사 허브뮤직에 따르면, 블랙스트링은 ACT와 향후 정규앨범 총 5장을 발표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ACT는 나운선, 닐스 란드그렌 등 유럽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발매하고 있는 레이블로, ECM과 함께 유럽의 양대 재즈 음반사로 꼽힘. 이 음반사들의 앨범을 수집하는 마니아들도 전 세계에 분포돼 있을 정도
- 블랙스트링의 이번 계약은 ‘93년 김덕수 사물놀이가 오스트리아 그룹 레드선과 협연 음반을 ECM에서 낸 이래 23년 만의 쾌거로 평가됨. 국악그룹이 단독으로 ECM이나 ACT에서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블랙스트링이 처음이기 때문. ‘09년 나운선, ‘13년 신예원이 각각 ACT, ECM에서 음반을 냈으나 모두 재즈 보컬 음반이었음

국악그룹 ‘블랙스트링’



* 사진 : 동아닷컴(2016.7.18)

- 무엇보다 ACT의 지기 로흐(Siggy Loch) 회장이 직접 연락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해짐. 그는 ‘16년 5월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재즈 마켓 재즈어헤드(Jazzahead!)를 방문해 블랙스트링의 데모 음반을 듣고는 지난 6월 계약과 동시에 오는 10월 4일 유럽 발매를 결정
- 뿐만 아니라 블랙스트링은 오는 10월 1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월드뮤직 엑스포 ‘위멕스



(WOMEX) 2016' 공식 쇼케이스 아티스트로 초청됐으며, '17년 1월 미국 무대 진출을 앞두고 있음. 이들은 향후 국악의 전통성과 새로운 사운드를 탐구하는 다양한 시도 계획 중. 월드뮤직으로서의 한국 전통음악의 독특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됨

* 블랙스트링 : 거문고를 가리키는 블랙스트링은 '11년 한-영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UK커넥션 프로젝트'를 통해 결성됨.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광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문고 명인 허윤정을 주축으로, 기타리스트 오정수(Jean Oh), 대금 연주자 이아람, 연희집단 'The 광대' 출신 황민왕 등 4명의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에 기반을 두며, 즉흥음악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재즈와 조화를 이루는 음악들을 선보임

아프리카



■ 드라마 <천일의 약속> 이집트 국영TV 2채널에서 방영('16.7.17)

- '04년 <가을동화>, <겨울연가>, '08년 <내 이름은 김삼순>, '15년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이집트에서 한국 드라마 첫 방영. 국내에서는 '11년 방영된 <천일의 약속>은 더빙 없이 아랍어 자막으로 처리·방영되어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까지 촉발할 것으로 예측
- 이집트는 한국과 달리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가 많은 비중을 차지. 영화 역시 코미디 영화 혹은 할리우드식 액션영화가 흥행하는 나라. 한편 한국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멜로드라마는 이집트 여성들에게 소구하는 측면이 있음. 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의 부드러운 말투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이집트 사회에서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



드라마 <천일의 약속> 포스터



* 사진 : 천일의 약속 공식 홈페이지

- 이집트 한국문화원 페이스북에 게재된 <천일의 약속> 방영 소식에 현지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음. “드디어 아랍어 더빙이 아닌, 아랍어 자막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니 감격이다!”, “한국 드라마만을 위한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재방송도 부탁드립니다~”, “주인공들이 너무 멋있다” 등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움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김리양 이집트 통신원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질문에 과거에는 “잘 모른다”, “중국과 한국이 다른 국가인가?”라는 답변이 돌아왔으나,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 “한국 배우들이 멋있다”, “한국을 사랑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힘. 본 방영을 계기로 한국 멜로드라마가 이집트 안방극장에 다시 한 번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

작품명	감독 및 출연	내용
천일의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프로듀서 : 김영섭 • 출연 : 김래원, 수애 등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